

<2025년 6월 15일 주일말씀>

행한 자만 안다

본 문 :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할렐루야!

◎ 오늘은 ‘행한 자만 안다.’ 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할지 먼저 서론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 행한 자만 ‘산 자’ 이기에 압니다.

겪은 자만 그것을 얻기까지

지옥 고통도 받고, 또 기쁨도 느끼며 직접 겪고 얻었기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 성경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행한 자는 산 자라 알고,
 행치 않은 자는 죽은 자라 모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주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산 자로서 천국에 갔으니, 천국을 압니다.
 하나님과 주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은 자는
 죽은 자로서 흑암과 사망 세계로 갔으니, 천국을 모릅니다.
 지옥의 삶을 살아서 지옥은 압니다.
 그곳에 간 자만 그곳을 압니다.

- 섭리 안에서도 그것을 향해 행한 자만 압니다.
 행치 않은 자는 죽은 자라 모릅니다. 말만 듣고는 모릅니다.
 천국은 말로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 모두 오늘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않는 자는 모릅니다. 죽은 자입니다.
 행한 자는 산 자라 행하였기에 가 봐서 압니다.
 행해야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의인들을 괴롭히고 억울케 하는 자를 그냥 두냐고 합니다.
 하나님도 행치 않으시면 죽은 격이 되니 절대 행하십니다.
 단, 때가 돼야 심판의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죽은 나무를 끌어모으고 계십니다.

때 되면 불사르는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 쓰레기를 계속 끌어모으고 계십니다.

때 되면 실어다 불사르십니다.

하나님은

“하고 있으니, 의인들은 너희 할 일이나 하라.” 하십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하겠습니다.

모두 다시 집중하여 본격적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겠습니다.

- 하나님이 처음부터 불의한 길로 가지 않고

불의를 행치 못하게 돕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하십니다.

사랑하여도 때 되어야 도우시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자일지라도 세상이 대하는 대로 두었다가

때가 되어야 도우시고, 행한 대로 이뤄 주십니다.

- 악한 자는 끝, 정한 때에 모두 그동안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세상 모든 악이 선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면

끝에 가서 악을 소멸하는 심판을 하십니다.

또 그 영을 심판하여 흑암에 가두십니다.

○ 악한 사탄과 악한 자들이

악한 선한 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선한 자들이 억울하게 죽기도 하고,

긴긴 역사를 두고 고통을 받습니다.

육은 고통스러워도 영은 천국에 속해 삽니다.

○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왜 악을 즉시 심판 안 하시나?” 합니다.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 선(善)이신데,
악을 행하는 시작 때부터 못 하게 하든지 하시지,
왜 멸하지 않아서 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악으로 고통을 받게 하시나.’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또, 악마들과 돌이키지 않는 악한 자들을
왜 지상에서 그냥 두냐고 하며 믿음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 하나님은 악을 가지고 악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악을 선을 위해 쓰시며 악을 다스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은 악은 영원한 지옥에 넣고,
선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영원히 살리십니다.
악한 자는 심판받아 그 영이 사망에 던져져 있습니다.
영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 하나님은 천사와 사자들과
지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사는 자들과 함께
매일 악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십니다.

- 여러분들은 모두 악을 추호도 행치 말아야 합니다.
행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합니다.

○ 악은 옥토 밭의 잡초같이 봐야 합니다.

잡초는 모두 사람이 뽑아 없애야 하듯이
자기 마음에서, 생활에서 자기가 악을 뽑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한테만 악을 왜 안 없애냐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마음과 행실의 악을 뽑아 없애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는 선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 자신의 마음에서 악을 없애야

자기가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을 확신하게 되어
악을 싫어하며 살게 됩니다.

○ 자기가 빛이 돼야 빛을 좋아합니다.

어둠에 있으니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둠이면 어둠을 좋아하여 쫓아갑니다.

(요 3: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섭리사에도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어둠을 찾아갔습니다.

○ 옷을 입은 대로 모입니다.

같은 운동복을 입은 대로 한 팀이 되듯이
어두운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은 모두 모여 같이 다닙니다.
천국에는 흰옷 입은 자와 깨끗한 옷 입은 자들끼리 모여 살고,
지옥에는 짐승 가죽처럼

어두운 옷을 입은 자들이 모여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에 옷은 행실을 표상한다고 했습니다.

(계 19:8)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iero다 하더라”

- 온전한 빛, 하나님, 성령, 성자, 주의 빛에 속해 살면
어둠이 오지 못합니다.
악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빛에 속하면 속할수록 어둠이 더욱 오지를 못합니다.
그 실상을 영계에서 보면
어둠에 속한 영이 빛으로 오기 싫어합니다.
벗고 다니는 것과 같이 자기 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 빛은 태양보다 더 빛나는 얼굴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선이요, 사랑의 빛, 공의와 진리의 빛이십니다.
그 안에 속해야 합니다.
- 얼굴에 빛이 나는 자들은 모두 선에 속한 후광 때문입니다.
선생이 1980년 초반 남가좌동에서 개척할 때 일입니다.
설교할 때 불이 꺼졌으나, 선생 얼굴에 빛이 빛나서
모두 선생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전깃불이 켜져 있을 때보다
얼굴이 더 환했다고 했습니다.

○ **하나님이 세상에 참빛이신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요 1:9)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시대마다 보낸 자가 빛입니다.

진리의 빛, 구원의 빛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로 그와 일체 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빛에 속해 살게 됩니다.

그와 일체 되어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사야 60: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 **하나님 심판의 빛, 선의 빛, 사랑의 빛이 비치매**

악한 영들의 행위가 드러납니다.

못된 행위, 악한 행위들입니다.

○ **한번 병에 걸리면 오래 치료해야 합니다.**

조금씩 더 악화하여 아예 체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로 오랫동안 체질을 개선하며 고쳐야 합니다.

신앙의 병도 그러합니다.

건강의 빛이 영육 간에 찬란하길 축원합니다.

○ **어둠의 병에 걸리면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낫고,**

치료할 것은 치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다 치료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해야 치료됩니다.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둠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빛의 체질이 돼야 합니다.

○ 어둠에 있는 자는 생명에서 벗어나 죽은 자입니다.

빛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는 육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주와 성령과 관계성이 끊어진 자도 죽은 자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자 역시 죽은 자입니다.

확실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죽었어도 자기는 죽었는지 모르고, 산 자만 압니다.

○ 회개치 않은 자는 그 죄가 자기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특히 불신죄, 배신죄는 입으로만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자를 믿고 진리로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평생 영원토록

자기 죄로 인해 사망에서 못 나옵니다.

○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끝까지 가야 합니다.

◎ 저마다 자기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기도 알지만, 주가 더욱 압니다.

주와 일체 되어 살아야 전능자 하나님과도 일체 되어

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 예수님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 하나님과 일체 되어 부활한 자가 되었습니다.

구시대 율법에 속한 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일체 됐다고 하나,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여 새 시대에 보낸 자와
 일체가 안 되었으니,
 하나님과 일체가 안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일체 된 자를 “산 자다. 부활했다.” 합니다.

- 성경에 ‘부활’이라는 단어는
 육신이 살아났을 때 쓴 단어가 아니고,
 신앙으로 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육신이 다시 살아난 자에게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살아났다.’ 했습니다.

(요 11:21~26)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 참고 성구 : 왕상 17:17~24, 왕하 4:32~37, 막 5:21~43, 눅 7:11~17, 요 11:1~44, 행 9:36~42, 행 20:7~12

- 선생은 성경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육이 죽은 자를 살린 몇몇 사건 이외에는
나머지는 모두 영적, 신앙적 부활이었습니다.
기성은 이것을 모르고 육이 살아나는 부활만 중심하다
신앙의 부활을 신경 안 써서 모두 영들을 죽게 했습니다.
정말 무지한 신앙들, 기적만 원하는 신앙들을 했습니다.

○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시대 보낸 구원자와 일체 되지 않은 자에게는
새 시대 구원이 이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구시대 사람들은 구시대급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이 새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 자들입니다.

새 시대 하나님 보낸 자를 따라야 약속을 이룹니다.
새 시대 이상세계로 부활되어 새 시대 축복과 구원을 이룹니다.

- 확실히 알고 행치 않고서는 그 주관권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모르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섭리사에 살아도 제대로 모르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배우라고 섭리 성경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영상 1> 시작

- ◎ 사슴, 돼지, 원숭이 등 각종 짐승도 새들도
같은 종자, 같은 종족이 아니면
같이 먹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고기를 사랑하여도
 물고기가 아닌 다른 종의 동물은
 물고기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상 1〉 끝

- 이와 같이 사람도 하나님과 성령과 주의 형상과 닮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여도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형상, 모양, 마음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 하나님 역사에서는 선한 자는 선한 자끼리,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끼리 살아갑니다.
 고로 쫓개는 역사입니다. 자동으로 쫓개져 존재합니다.
- 섭리사 안에 있으며 때와 시간을 주어 살게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주 하나님과 일체 되지 않으니
 여기 속해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시대 신앙자가
 구시대의 정신, 사고 중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새 시대에 와서 같이 못 삽니다.
- 같은 종이랴야 같은 종에 속합니다.
 자연 속에 존재할 때는
 돌 속에 철이나 금이나 은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처음의 자연법칙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쓸 때는

용광로에 제련하여 금과 철을 뽑아내서 쪼개어 씁니다.

〈영상 2〉 시작

- 이와 같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선악이 섞여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들을 쓰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선과 악을 쪼개어 쓰십니다.
자기 존재대로 하나님 용광로에 넣어 분석하시고
선악을 쪼개서 쓰십니다.

〈영상 2〉 끝

- 하나님의 역사는 선악을 쪼개는 역사입니다.
쪼개지 않으면 각각 만족하게 해 줄 수가 없고,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선생에게도 선악을 쪼개라고
‘석(析)’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쪼개는 이름입니다.
(마 3:10)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쪼갠 석’을 따라
열매 열지 않은 나무는 쪼개냈습니다.

○ 쪼개지 않으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아브라함도 쪼개지 않으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사탄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창 15:10~13)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종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므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영상 3〉 시작

○ 선과 악은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고로 쪼개시어 각각 존재케 하십니다.

선은 선한 대로 충만히 주시고,

악은 악한 대로 충만히 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악하게 살수록 괴롭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악이 행해집니다.

〈영상 3〉 끝

○ 마약은 순간만 좋고 오랫동안 고통을 주는데도

마약 하는 자는 계속 못 참고 마약을 합니다.

중독되니 계속합니다.

마약 하던 자는 온전히 끊고 나와야

마약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서야 압니다.

그와 같이 악을 모두 끊고 나와야

악을 끊고 의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행한 자만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옵니다.

- ◎ 새 시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알고 그 생각대로 따라서 행해야
 그때서야 생명의 가치를 압니다.
 악한 자는 허무로 끝이 납니다.

- 제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는
 순종하고 알고 따름으로 인해 오는 때를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자만 알고 받고
 앞 시대에 가서 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 알지 못하고 행치 않은 자는
 행하고 축복받고 사는 자의 그 심정도 생각과 마음도 모릅니다.
 지옥 가서 사는 자는
 천국에 가서 이상세계 누리는 자를 영원토록 모릅니다.
 천국에 가서 사는 자만 천국의 이상세계를 압니다.
 천국에 간 자 역시 지옥에 안 가 보면 지옥의 고통을 모릅니다.

- 그러므로 땅에서 주를 알고 믿고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들은 땅의 축복도, 하늘의 축복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같이 살지 않는 자는 이 축복을 모릅니다.

-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여 이끌어 오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모릅니다.
모르는 자는 아는 자를 뽀박하고 싫어합니다.
아는 자들끼리 사연을 나누고
시대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뽀박하는 자에게 새 시대를 말해 주고 가르쳐 주면
그들도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뻐 행하게 됩니다.
따라오지 않아도 이야기라도 해 주면 알고 이해는 해 줍니다.
- 길 가다 밭에 걸리는 돌이나 나무뿌리는
뽀아내 버리면 평생 편합니다.

섭리 길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걸림돌도 깨 없애면 평생 편안합니다.
믿음도 사랑도 진리도 100% 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단상을 통해 말씀하시면
각자 해당하는 자기 것을 깨끗하게 자르고 고쳐야 합니다.
그리하면 신앙이 빨리 크고 발전합니다.
영의 형체가 다른 형상으로 더 좋게 부활하여 변화됩니다.
그리하면 다른 주관권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관권의 새로운 것을 얻게 됩니다.
- 자기도 환경도 변화의 기쁨입니다.
화장품을 써서 자기 얼굴의 주름이 없어지고, 기미도 없어지고,
젊어지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자기 육도 영도 의의 행위로 변화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기쁘고,
 자기 영도 육도 기뻐 희망차 살아갑니다.
 고로 말씀을 행함으로
 매일 육도 영도 혼도 관리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 우리의 소원은 ‘생명나무’ 가 되는 것입니다.

(잠 13:12)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이는 아담은 못 되고 예수님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원하신 대로 ‘아들 생명나무’ 가 되셨습니다.

이 시대는 ‘신부 생명나무’ ,
 하나님의 사랑 대상, 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온전한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다른 자는 죽은 자입니다.

소원을 이루지 못한 자는 희망의 낙을 잃고 살아갑니다.
 소원을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이 상하나니
 여러분들은 이 시대 영원한 소원을 어서 이루기를 바랍니다.

○ 하나님 소원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 소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소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소원을 이뤄 드려야
 하나님이 자기의 만 가지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 소원이 쉽게 간단히 이뤄지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한마음으로 매일 행해야 합니다.

끝까지 해야 희망의 소원을 이룹니다.

하나님 안에 자기 소원이 있어야

성령도 주도 함께해 주시어 그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 소원을 이뤄 줘야 믿어 주고 같이 살게 됩니다.

○ 또한 소원을 이루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과 같이 살며 그 얻은 것을 쓰고,

그 뜻을 생명들과 후대에 전해 줘야 합니다.

생명들을 이끌어 구원하여

자기 영광의 면류관을 삼는 것입니다.

자기 창조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고도

허무에서 벗어나 영원한 기쁨을 누린 자는 없습니다.

◎ 오늘 첫 번째, ‘행한 자만 안다.’ 말씀했습니다.

행한 자, 겪은 자는 하나님까지 알게 됩니다.

성령도 알게 되고, 주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겪은 자는 상대의 심정을 압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이 쓴 잔 마시는 자가 나의 영광에 참여한다.”

하셨습니다.

(막 10:37~40)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

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 오늘 두 번째로, 그 빛에 속한 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의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 희생의 빛을 발해야
보다 육도 영도 늙지 않고 찬란하게 됩니다.
-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소원을 이뤄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소원을 이뤄 드려야 귀히 쓰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 주의 목적과 소원을 이룬 자를 쓰십니다.
그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 ◎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행한 자만 아는 기쁨과 축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